

선거법 위반 전 공직자 공기업행 '논란'

원 지사, 함께 재판받은 전 공직자 비상임이사로 낙점 시민단체 "전형적 보은 인사... 공정사회 실현에 배지"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신과 함께 재판에 회부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 고위 공직자를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난 22일 제주도개발공사 비상임이사로 A(70)씨를 임명했다. 지난해 12월 시작한 제주도개발공사 비상임이사 공모에는 모두 5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개발공사는 이후 서류 전형 등을 거쳐 이 중 3명을 제주도에 추천했고, 원 지사는 이 가운데 A씨를 비

상임이사로 낙점했다. A씨는 앞으로 3년간 비상임이사로 일한다.

A씨는 제주도청 국장급 공무원을 지낸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23일 원 지사가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원 지사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공직선거법 상 제3차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원 지사는 공직선거운동 기간 전

에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듬해 A씨와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도는 A씨의 선거법 위반 전력이 지방공기업법과 도개발공사 정관이 정한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명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 담임 제한 대상도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로 규정돼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A씨의 임명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도덕적으론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공정하지 못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강호진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전형적인 선거 보은 인사"라며 "더욱이 선거법 위반 전력을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한 것은 공정사회를 의지한 원 지사의 평소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선거법 위반 전력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한 인사가 제주교통약자지원센터 이사장으로 선출돼 시민단체와 도의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고, 앞서 그해 7월에는 제주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사를 청년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가 비판 여론에 뒤늦게 해촉하기도 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27일 오후 제주시 회천동 한 연립주택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택 출입문과 창문 등이 부서졌지만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연합뉴스

연립주택 가스폭발... 인명피해 없어

도내 한 연립주택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 26분쯤 제주시 회천동 소재 한 연립주택 1층 주방에서 세대주가 음식을 조리하던 중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해당 주택 출입문과 거실 창문 등이 부서지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 3대가 폭발 파편에 의해 부분 파손됐다. 사고 당시 집안에는 2

명이 있었지만 곧바로 대피해 별다른 부상은 입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세대주가 키우는 애완견이 가정용 LP가스 고무호스를 물어뜯어 수리한 적이 있다는 점과 평소 가스 냄새가 나 주방을 자주 환기한 점 등으로 미뤄 파손된 고무호스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LP가스 고무호스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의견 진술 기회없이 내린 징계는 위법"

법원, 학폭위 결정 취소 판결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제주도내 모 중학교 학생 A(16)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양은 2018년 9월 학교 측에 동급생인 B양으로부터 그해 3월부터 7월까지 학교폭력과 그의 어머니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학교 측은 그해 9월 2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양과 B양에게 각각 쌍방 서면사과와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4시간의 특별교육이수를 명령했다. 피해 학생인 줄만 알았던 A양과 부모는 이런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양과 부모는 자신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실을 통보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의견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교폭력 처분 사유를 A양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런 절차들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원고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상민기자

양어장 냉동창고 화재

27일 오후 2시42분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한 양어장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소방서 추산 147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故 김복동 할머니 추모 제주평화나비 분향소 설치

제주평화나비는 평화·인권운동가 故 김복동 할머니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과 분향소 설치 및 추모제를 30일까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진행한다

이들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로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에 늘 앞장서던 김복동 할머니께서 하늘로 가신지 1년이 흘렀다"며 "그를 기억하기 위해 제주 시민들과 함께 김복동 할머니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설 지난 어촌 풍경... 그물정리 분주 28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어민들이 설연휴 제주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조업을 다시 하기 위해 그물을 정리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중고생 무상교복 시대?... 학부모 "글쎄~"

"체육복·카디건 등 추가 비용 지불 많아... 경제적 부담 여전"

학부모 A씨는 최근 고등학교 입학에 앞둔 자녀와 교복 업체를 찾았다. 당황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도 무상 교복이 지원되면서 치수만 재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해당 학교 교복 규정에 포함된 카디건 비용 6만5000원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체육복과 블라우스 여벌을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을 내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엄연히 학교 교복 규정에 언급돼 있는 카디건

이 지원 대상에 빠진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올해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2020학년도부터 '무상 교복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도내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는 교복비가 현물로 지원된다. 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 구

매 계약을 마친 업체에서 교복을 구입하면 그 비용이 지원되는 구조다.

문제는 교복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은 카디건과 같은 품목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B학교의 경우 학교 제규정집 '교복 규정'에 카디건 디자인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추가 구입 품목으로 정해 매장에서 별도로 구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카디건은 동복이나 하복에 포함돼 있지 않아 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

이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 말뿐인 무상 교복이라는 쓴소리를 낸다.

이는 전국에서 교복비가 가장 비싼 제주지역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구입 구매에 따른 2019학년도 교복 낙찰가 전국 평균이 18만8826원(동복 4개 품목 기준)이었는데, 제주지역은 이보다 2만원 이상 비싼 20만9440원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서지역인 제주는 비용이 추가되다 보니 교복 가격이 타 지역보다 조금 비쌀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2020학년도 동복 입찰 현황을 파악한 뒤 교복 구매 가격이 상한선을 넘거나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는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2020년도 동래정씨참의공파 제주도종친회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

희망찬 庚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종친 및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2020년도 신년하례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회장 이·취임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2020년 2월 1일(토) 오전 10시 30분
1부 : 신년하례회 10:30 | 2부 : 이사회및정기총회 11:00 | 3부 : 회장 이·취임식 12:00

장소 꽃가마예식장 2층(제주시 문예회관 주차장 동측)
참석대상: 전 종친 | 연락처 : 총무이사(창복) 010-6693-4847, 재무이사(재철) 010-9898-6666

자랑스런 종친			역대회장단 및 총무이사					
정희복	30세	수훈	홍조근정훈장(교장퇴임)	1대	93.02.27-95.04.01	정문두	총무이사	정인생
정영현	30세	승진	지방서기관(서귀포시청)	2대	95.04.02-97.04.08	정문수	총무이사	
정길대	31세	승진	부이사관(기획재정부)	3대	97.04.09-99.04.17	정수현	총무이사	정영철
정진혁	31세	합격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삼정)	4대	99.04.18-01.04.17	정남두	총무이사	정공익
정근부	32세	당선	이사장(제주남원동부새마을금고)	5대	01.04.18-03.04.04	정윤희	총무이사	정능모
정신중	33세	등단	수필가(대한문학 신인작가 등단)	6대	03.04.05-05.04.04	정동진	총무이사	정대수
정태근	33세	취임	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부위원장	7대	05.04.05-12.02.04	정인삼	총무이사	정공철
정성호	33세	승진	지방부이사관(제주도청)	8대	10.04.05-12.02.04	정문수	총무이사	정상진
정승훈	33세	합격	행정고시(국토건설부)	9대	12.02.05-14.03.31	정공익	총무이사	정용진
정재우	34세	취득	물리학박사(미국IBM연구소)	10대	14.04.01-16.03.31	정희원	총무이사	정희보
정영현	34세	취득	도시공학박사(찬스토티부사장)	11대	16.04.01-18.03.31			

동래정씨참의공파 제주도종친회장 능 모

기계유씨 제주도종친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

희망찬 庚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종중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2020년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과 성원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20년 2월 2일(일) 10:30
■ 장 소 : 파라다이스회관(삼성혈 서쪽)
■ 주요안건
-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안) 승인
- 기타 종중 운영에 관한 사항

기계유씨제주도종친회장 유 종 성
기계유씨제주도청년회장 유 병 길

재 제주시 남음향우회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 안내

희망찬 2020년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20년 2월 2일(일요일) 11:00
◆ 장 소 : 미래컨벤션센터(3층 연회장)
◆ 부의안건
① 2019년도 결산승인의 건
②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③ 임원선출의 건
④ 기타사항
※ 당일 합동 신년하례회를 갖습니다.
◆ 연 락 처 : 회 장 강승주 010-4696-2525
총무부장 진석빈 010-4650-5393
재무부장 진일석 010-2698-3162

재제주시남음향우회
회 장 강 승 주